

“한전, 해외에서 답 찾을 것”

- 해외사업 비중 50%이상 높이고 M&A로 규모·기술력 강화

한국전력(사장 김중겸)이 올해 해외사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해외사업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국내 전력산업의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여유 인력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사업 강화를 통해 수익을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김중겸 사장은 지난달 2일 열린 시무식에서 현재 3% 수준인 해외사업의 비중을 향후 50% 이상으로 높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원전, 화력, 신재생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M&A를 통해 규모와 기술력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겸 사장은 국내에서는 한전의 고유 업무인 전력공급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수익은 해외에서 거둬들여 수지 균형을 맞추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과 한전KPS(사장 태성은), 인도 PTC에너지(회장 티엔 타쿠르)가 지난달 10일 한전KPS 본사 대회의실에서 ‘인도 발전시장 공동 개발 및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남동발전·한전KPS, 인도 발전시장 진출

이에 따라 남동발전과 한전KPS는 인도 안드라 파라데시(Andhra Pradesh)주에서 66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중부발전, 인도네시아에 2호 초등학교 건립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이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 초등학교를 만든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9일 서울 영동대로 본사 회의실에서 국제아동후원단체인 플랜 한국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지역에 코미포(KOMIPO) 제2초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2초등학교는 중부발전이 운영 중인 탄중자티 발전소 인근 케둥자티 지역의 응용박 마을에 짓는다.

중부발전은 교실 13개와 도서관, 화장실 및 식수시설을 갖춘 건물을 오는 11월 까지 준공하고 학교 기자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 건립으로 이 지역 학생 4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그로보강 지역에 제1초등학교를 착공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학교 설립이다.

남부발전 · 협력사 ‘합작품’ NEP인증 획득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상호)과 나라코퍼레이션(대표 노창환)의 합작품이 우수 신제품(NEP)인증 획득이란 결실을 맺었다.

남부발전은 중소 협력업체인 나라코퍼레이션이 ‘고속형 변속 유체커플링’으로 NEP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펌프, 송풍기 등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로, 부하에 따라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 장치에 비해 에너지 절감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부발전과 나라코퍼레이션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들여 오던 고속형 변속 유체커플링을 자체 기술로 제작, 연간 약 27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파워(대표 조성식)가 신안 태양광발전단지를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포스코파워는 지난달 26일 전남 신안군 팔금면에서 2MW 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준공했다. 3만㎡ 규모의 폐염전에 건설한 신안 태양광발전단지는 연간 2600MWh 전력을 생산한다.

포스코파워는 태양광발전 부문에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2012년 의무량을 완수하게 됐으며, 단계적으로 신안군에 총 35MW 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휴공간인 폐염전 부지를 활용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했다. 태양광발전단지 인근 팔금면 도로포장, 배수로 건설에 착수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파워, 신안에 2MW 태양광발전단지 준공



● 코트디부아르 발전소 증설... 2억 5000만 달러에 수주

현대건설(사장 정수현)이 코트디부아르에서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발전소 증설 공사 수주에 성공,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난달 11일 현대건설은 최근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 국가인 코트디부아르의 '아지토(Azito) 발전소 증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민자발전소(IPP) 전문 개발 업체인 영국 글로벨레그(Globeleg)사가 대주주인 아지토 에너지에서 발주한 공사로 계약금액은 약 2억 5000만 달러(약 2900억 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코트디부아르 행정·경제 중심지인 아비장 시내 남서쪽에 위치한 기존 가스터빈 발전소 현장에 139MW 스팀터빈 1기를 추가하는 등 기존 발전소를 복합화력발전소로 증설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27개월이다.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수행해 온 발전소 공사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공사를 수주했다.

특히,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건설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향후 코트디부아르 및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주 예정인 유사 공사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현대건설, 아프리카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SK건설, 고성에 3조 규모 火電

● 1000MW급 2기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

SK건설이 경남 고성에 3조 원짜리 대규모 민자 화력발전소를 짓는다.

SK건설(대표이사 윤석경)과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1,000MW급 화력발전설비 2기 건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SK건설과 남동발전 및 고성군은 이날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신(新) 삼천포 민자화력발전소 고성군투자유치 기념식 및 전략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윤석경 SK건설 부회장과 장도수 한국남동발전사장, 이학렬 고성군수가 참석했다.

신삼천포 화력발전소는 현재 가동 중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190만㎡부지에 1,000MW급 화력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는 공사다. 신삼천포 화력발전소는 연료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축, 산화제·온배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차세대 최첨단 친환경 화력발전소로 시공될 계획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건설되는 신삼천포 발전소 주변에는 소수력·풍력·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설치될 예정이다.

LS전선, 국내 첫 자기공명 무선전송시스템 개발

● 최대 2m까지 선 없이 전력 전송 가능

LS전선(대표 구자열)이 지난달 26일 자기공명 무선전송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로 실증화된 모델을 선보였다.

자기공명 무선 충전이란 송신 코일에 일정한 자기장을 유도해 수신 코일과 공진시키는 메커니즘으로 두 개의 구리 코일을 같은 자장에서 공명하도록 파장을 맞춰 전력을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기존 정보기기나 전동칫솔 등에 사용되는 전자기 유도 방식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최대 2m 거리까지 선 없이 전력을 보낼 수 있다. LS전선은 이 방식을 활용하여 TV나 발광다이오드(LED)스텐드 등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스마트 폰 등 휴대용 정보기술기기의 발달과 가정용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가정용 전자기기들이 출시되면서 공공건물과 주택 등에서 무선전력 전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서치기관 IHS서플라이에 따르면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2015년 연 2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디파워, 국내최초 ‘라운 로봇태양광’ CE인증

케이디파워(대표 김임배)가 원통형 캡구조의 태양광트래커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케이디파워는 자사 ‘라운 로봇태양광’이 최근 국내 처음으로 유럽 CE인증(Conformity European)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일반 구조물 대비 38%의 고효율을 인정받은 라운 로봇 태양광은 원통형 캡구조로 지난해 NET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CE는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 21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준회원국인 7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안전인증이다. 케이디파워는 태양광발전 RPS사업과 관련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1호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특수목적법인(SPC)인 (주)KnH솔라를 설립한 케이디파워는 태양광 발전 제조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토털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태양광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말리와 3570만 달러 규모 전자정부 구축사업 계약

대한전선이 연초부터 아프리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한전선(사장 강희전)은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아프리카에 있는 말리와 3570만 달러 규모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리 통신청(MPNT)이 발주한 ‘정부 행정망 구축 사업’으로, 대한전선이 앞으로 2년간 말리 정부의 통합 행정망 구축에 필요한 광케이블 및 전송장비와 VSAT(초소형위성통신지구국)등 부속품 일체의 공급과 설치 공사를 모두 맡는 턴키 방식이다. 말리는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124만km², 인구 1300만 규모의 신흥 개발국가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 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진행된다. EDCF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 설비와 기자재 구입, 건설자금 등을 경제협력 차관형태로 지원한다.

대한전선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서아프리카 지역의 정부 행정망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삼성물산과 함께 세네갈 정부에 2300만 달러 규모의 무선 와이맥스(Wimax)기술을 이용한 전국적인 정부 행정망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다. KEA

대한전선, 아프리카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